

광주은행,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7년 연속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지방은행 1위 인증식

신뢰성·편리성·소셜공정도 두각 지역경제 활성화·상생 지원 호평 고병일 "지역과 동반성장 최선"

광주은행이 7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를 차지해 주목받고 있다.

광주은행은 23일 본점 대강당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 박만 노동조합 위원장, 이립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상무 및 관계자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1위 인증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6회를 맞는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브랜드관리 모델로서 대한민국 소비생활을 대표하는 소비자, 내구재, 서비스재 등 약 240개 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평가제도다.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약 1만25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1대1 개별면접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2016년부터 조사된 지방은행 부문에서 광주은행은 신뢰성, 이용편리성, 소셜공정도 등 로열티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

아 2018년부터 7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1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로 창립 56주년을 맞이하는 광주은행은 금융산업 위기 속에서도 브랜드파워 7년 연속 1위라는 영예를 안으며 명실상부한 우수 브랜드로서 입지를 굳히게 됐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신력 있는 브랜드 평가지표에서 광주은행이라는 브랜드가 소비자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인정된 만큼 그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 예금을 받는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성장을 돕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개하는 '지역재투자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면서, 그동안 광주은행이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동맥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광주은행은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오고 있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봉사의 아름다운 기업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그동안 (재)광주은행장학회를 통해



23일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2024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1위 인증식이 열렸다.

광주은행 제공

4600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9억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해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왔으며, 지역인재 양성, 소외계층 후원, 문화예술 및 스포츠 후원, 지역사회 봉사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방면으로 힘을 보태 온 결과, 2022년에는 광주·전남 최초로 대한적십자사 10억 기부클럽에 가입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은 인증식에서 "광주은행은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친절하고 믿음이 가는 은행', '지역과 상생하는 은행'으로 신뢰받고 있다"며 "지역 내 탄탄한 영업력과 디지털뱅킹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사명을 다하는 임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로 7년 연속 1위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7년 연속 1위의

결과에는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사회 문제에 공감하며, 지역민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시에 발빠른 금융지원을 실시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실천해온 선한 영향력들이 광주은행 브랜드에 힘을 실어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동반성장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이마트, '주류워크'... 위스키·고량주 할인판매

오는 30일까지 최대 40% 할인

이마트는 24일부터 30일까지 올 상반기 '주류워크' 2주차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인기 위스키와 고량주 등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이마트는 최근 주류 트렌드를 반영해 '위스키'를 행사 중심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마트의 위스키 매출은 지난해의 경우 2022년 대비 18% 증가했고, 올해 1~4월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늘어나며 고신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인기 위스키와 고량주 등을 선정해 최대 40% 할인 행사를 기획했다.

대표상품으로 발베니 12년 더블우드(700ml, 영국)와 하이볼로 유명한 산토리 가쿠비(700ml, 일본)를 행사가에 판매한다.

와일드터키 레어브리드(750ml, 미국), 러셀 리저브 10년(750ml, 미국), 듀

위스 화이트라벨(700ml, 영국)도 최대 40% 할인한다.

연태고량주(500ml, 중국)는 기존 정상가에서 20% 할인한 행사가 1만원대에 선보인다.

행사 기간 이마트 앱(APP)에 있는 스마트 오더 서비스 '와인그램'을 이용해 전용 할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국내 전통주인 생(生)막걸리는 전품목을 대상으로 2병 구매 시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해장, 지평, 장수, 복순도가, 국순당 등 유명 브랜드가 참여했다.

SSG닷컴도 같은 기간 전통주를 중심으로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식품 버티컬 '미식관'을 통해 예산 사과로 만든 인기 전통주 '추사40'을 조명하는 영상 콘텐츠를 선보인다.

전통주 구독 스타트업 '술담화'와 함께 기획한 가정의 달 선물세트도 단독 판매한다. '왕주 25%', '해미달기주', '밀양이오' 등 3종으로 구성됐다.

박소영 기자

AI사업단, 창업기업 성장 지원교육 '호응'

AI윤리·마케팅 전략 등 교육 예비 창업자 역량 강화 기대

광주지역에서 21세기 세계적 화두인 인공지능(AI) 윤리와 개인정보보호 이슈부터 마케팅 전략, 투자 유치·자금 조달 전략까지 AI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진행돼 관련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전남대학교 G&R hub 1층 세미나실에서 AI 관련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AI 창업 교육

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 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 융합사업단과 함께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과 협력해 AI 기술 기반 창업의 성공 전략과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정부지원사업 동향 및 자금조달 전략 △AI 윤리와 개인정보보호 이슈 △AI 관련 법제의 이해 △R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 전략 △AI 스타트업 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사업계획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푸바오 케이스' 출시

삼성전자가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를 모티브로 제작한 '갤럭시 버즈 푸바오 케이스'를 24일 출시한다.

'갤럭시 버즈 푸바오 케이스'에는 푸바

오의 털빛 '푸롱지(푸바오+누룽지)' 색상이 적용됐으며, 정수리의 뿔털 디테일까지 살린 것이 특징으로 삼성닷컴과 삼성강남에서 구매 가능하다.

서 작성법 △AI 경영 전략 △식재산 이해와 특허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 첫날 진행된 윤길준 법제처 법제관의 'AI 관련 법제의 이해'를 비롯해 김성수 중소벤처진흥공단 교수의 '정부지원사업 동향 및 자금 조달 전략', 조혜선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의 'AI 윤리와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을 다룬 교육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예비 창업자 장운진(33)씨는 "AI 관련 법제와 개인정보보호, 자금조달 전략 등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았던 분야의 다양한 교육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됐다"며 "특히 AI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또 갤럭시 버즈2 프로'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갤럭시 버즈2 프로 푸바오 패키지', '루이바오', '후이바오' 케이스까지 한번에 소장할 수 있는 '갤럭시 버즈바오패밀리 케이스 팩'과 '갤럭시 버즈바오패밀리 케이스 팩도 24일부터 삼성닷컴에서 한정 수량으로 단독 판매한다.

최권범 기자

재테크 칼럼

자영업의 위기가 심각하다. 고금리에 고물가, 임금인상의 3중고가 덮치고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이 1100조 원을 넘어서고,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금은 31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 때문에 폐업도 못하는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자영업자의 현실이

배달 플랫폼 독과점, 정부가 나서 풀어야

안타깝다.

자영업의 몰락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최저임금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대폭 인상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김밥가게도 해본 적이 없는 정책당국자가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해버렸다는 혹평도 나온다. 전 정부 경제정책 책임자의 사촌 동생인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모 교수가 사촌 형의 정책을 신랄하

게 비판했던 사실은 유명한 일화다. 소득주도 성장에 더해서 노동권 강화, 부동산 폭등에 의한 임대료 인상 등도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자영업을 수렁으로 빠트린 중요한 원인이다. 설상가상 코로나 위기의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넘겨 저금리의 대출로 모면하려 했던 것도 실책중 하나였다.

당장 당시 자영업자 대출금은 금리가 오르고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의 목을 조이는 한국 경제의 지뢰가 되고 있다. 현 정부가 자영업자의 현실에 맞는 구명보트를 띄워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필요한 것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는 것이다. 자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당업계는 지금도 한 목소리로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배달기업들이 힘없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당업계에 따르면 음식값의 약 30% 정도가 수수료, 배달료,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배달기업에 지불된다고 한다.

이런 기현상만 정부가 개선해도 자영업자들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두리뭉실 허울 좋은 말은 듣기는 좋지만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 자영업자의 고민을 가슴으로 듣고, 그 고민을 덜어줄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도 이제 3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